

新巫女圖



김은이 짓 무용단

육체의 이지화에 대한 또다른 도전과 실험

종종 지적하게 되는 말이지만 춤 예술은 인간 그 자체가 작품의 소재이면서 그 표현의 매체가 되는 특수한 예술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춤 예술은 춤을 추므로써 민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육체의 기층이라 할 내면 감정이 해소되기도 소환되기도 한다.

춤 예술이 주술적 마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육체의 리듬 공감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리듬 공감은 원초적 인간의 감정세계, 즉 기쁨, 슬픔, 사랑, 공포와 같은 감정표현을 하는데에는 적합하나 관념이나 이념과 같은 사유를 통한 이성적 작위성을 표현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그런데, 김은이교수의 이번 신무녀도는 이러한 춤 예술의 유희적 제한성을 논리적 구성과 춤사위의 상징적 양식화를 통해 잘 극복해 가고있다. 즉, 카리스마적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진보적 후더니즘을 총체적 사회의식화하는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은이교수의 금번작품은 상찬받아 마땅하리라.

우리가 김교수의 작품을 대할 때마다 갖게되는 즐거움은 늘 한국무용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틀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표현언어를 개발하려는 실험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도 이러한 관객의 기대를 십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본 작품은 기독교에 심취한 아들과 사마니즘을 신봉해 온 어머니 모화를 중심인물로 하여 자식과 어머니, 기독교와 사마니즘 혹은 서구문화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대위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배가해 가고있다. 결코 결합되거나 만나질 수 없을 것같은 이원적 요소를 저버릴래야 저버릴 수 없는 어머니와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끈으로 묶어놓고 반복과 회유를 반복시켜 간다.

이러한 대위항의 반복과 회유의 끈질긴 반복은 다분히 계산된 것으로,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머니를 통해 종교적 이념의 갈등에 대한 극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기실 종교적 이념의 문제가 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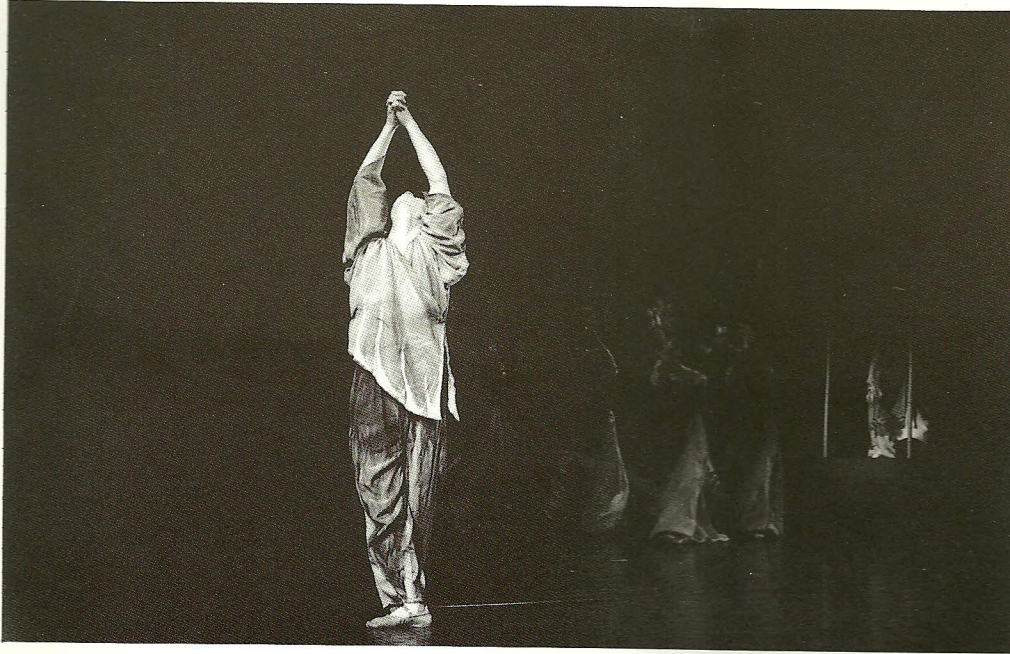
라고 하는 윤리에 선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김은이교수의 문제제기로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대위법적 안무의 반복은 이념과 윤리 사이에서 어느것이 선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망설임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여하튼, 답을 구하는 망설임이든 현대사회를 향한 인류와 윤리에 대한 문제제기이든 대위법의 반복된 사용과 대위법의 병렬적 사용은 모화일가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우리의 애련한 감정을 차단하여 우리가 굳게 믿어온 이념적인 것들에 대한 명상의 시간을 갖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김은이교수의 집요한 요구는 아마도 서구문명에 대해 패러노이어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병적 증후군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어 우리사회가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바람직한 인간,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갈구하는 의식세계가 표상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간 어머니가 자식을 따라 죽음을 택하고 죽은 어머니를 따라 그 딸이 스스로 무녀의 길을 선택하는 종장에 크라이막스를 설정한 것은 그 어떤 이념적인 것도 인류를 선행할 수는 없다고 하는 윤리관에 대한 부동의 신념이 표상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여하튼 이같은 본 작품의 사유의 세계인 이념과 윤리의 형상화는 늘 무용예술의 궁극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육체의 이지화에 대한 또다른 도전과 실험으로써 신무용 이후 한국무용이 직면하고 있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주제선택과 표현영역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김교수의 예술가적 실험정신이 이번 부산공연에서는 더욱 높은 차원으로 승화된 예술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무용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또다시 기대해 본다.



연혁

- 1986.9 한국춤모임 '짓' 창립식
- 1986.11-88.6 제1,2회 '짓' 좌담회(주제: 무용과 인접예술과의 만남, 직업무용단의 성격과 역할)
- 1987.5 한국춤모임 '짓' 창립공연, '얼굴벗기' -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 1989.8 '짓' 무용워크샵(주제:오늘의 춤 창작의 현황과 지역춤의 역할)
- 1987.9 부산무대예술제 무용시극공연 '달동별곡' - 부산시민회관 소강당
- 1987.12-91.12 창간호~제4호 '짓' 연구지 발간
- 1987.12-91.11 제1, 4회 지역간 연합무용제전 참가 '景, 엇더하니잇고?, 가을흔적' - 대구 동아문화센터, 내장산국립공원내
- 1988.11-91. 4 '88,'89,'90,'91 창작출판, 전통출판 '땅뻗기, 자유, 왜?, 풀잎영정, 일희용 시대, 짓, 짓, 짓!',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까지, 유다의 선택'
- 1989.8 부산여름무용축제 참가 '왜?' - 부산경성대 콘서트홀
- 1989.11-90.4 공간무용의 밤 '짓, 짓, 짓!', '유다의 선택' - 서울 공간사랑
- 1990.10 제12회 서울무용제 '랑겔한스섬~가문날의 꿈' - 서울 문예회관대극장
- 1991.3 정월대보름맞이 야외공연 - 부산해운대 송림공원, 용두산공원
- 1991.9 '짓' 5주년 창작춤 '빛의 나이테, 껍질속의 껍질, 생의 전주곡' - 경성대 콘서트홀
- 1991.11 젊은 춤꾼 9인전 '혹 더하기 백' - 부산 도레미문화센터
- 1992. 2 제8회 한국무용제전 '바람의 넋' - 서울 호암아트홀
- 1992. 3 제1회 늘원페스티벌 '사람과 사람' - 늘원소극장
- 1992. 4 한국춤페스티벌 '바람의 넋' - 대구 문화예술회관
- 1992. 5 젊은 춤꾼들의 창작전 '승화되기까지는' - 부산문화회관대극장
- 1992. 7 제1회 부산무용제 '바람의 넋' 대상 수상 - 부산문화회관대극장
- 1992. 8 해변무용제 참가 '진주검무' - 해운대 야외공연
- 1992. 9 제1회 전국무용제 '바람의 넋' 우수상, 연기상, 미술상 수상 - 부산문화회관대극장
- 1992.10 제5회 지역간 연합무용제전 주최, 참가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및 야외공연(성지곡수원지, 용두산공원)
- 1993. 5 '93 창작출판 '달을 먹은 눈, 꿈에젖은 거리' - 부산 Say 극장
- 1993. 5 제3회 대구무용제 '독백' 참가 - 대구문화예술회관
- 1993. 6 '짓' 7주년 창작춤 '서로 감추기', '욕, 욕, 욕', '독백' -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 1993.11 '93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공연 '신무녀도' - 서울문예회관 대극장

인사말씀

98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공연인 작품「신무녀도」는 김동리선생의 소설 「무녀도」를 무용극으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으로 작년 11월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자신의 작품에 크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공연이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동안 계속된 창작의 고통과 고된 연습, 공연제작의 여러가지 어려움 등으로 서울공연이 끝난 후 정말 쉬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공연예술부문에서 가장많은 지원금을 지원 받았던 공연이었기에 저에게 심리적으로 적지않은 부담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한달가량의 휴식을 취했지만 그 기간이 저에게는 충분한 쉬의 시간이 아닌 가슴앓이가 되었고 그리하여 또다시 무대를 준비하고 고통의 연속인 춤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춤이 곧 나의 삶이요,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저의 고향이 된 이곳 부산에서의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저와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 또 이번작품을 위해 함께 애써오신 스태프들과 함께, 무용극「신무녀도」의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공감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리면서...

1994. 3. 12

김 은 이





新巫女圖

안무의도

신무녀도는 김동리 단편소설 「무녀도」를 모티브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무녀도의 주인공 '모화'는 남매(옥이와 낭이)를 둔 무녀로서, 아들 옥이 집을 나가 떠돌아다니다 기독교에 심취되어 돌아오면서 모자간의 불화가 시작된다. 즉 모화의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되면서 모자간의 불화가 생기고 급기야 아들의 죽음과 함께 모화 또한 죽음을 따르고 ……

마침내 홀로 남은 딸 낭이의 슬픔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치관의 혼란과 흑·백논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무용극 「신무녀도」는 원작에 묘사되지 않은 어떤 심리성이나 상황성을 주인공 모화와 낭이, 옥이를 통해 보다 표면화, 입체화시키고 무용극의 흐름이 서술적 전개가 되지 않도록 각 장면들의 상징적 이미지나 춤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관심을 두면서 새로운 무용극의 틀을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안 무 : 김 은 이
 연 출 : 이 병 훈
 작 곡 : 안 일 용
 극 약 : 박병천 · 신혜영
 편 집 : 홍 동 기
 무대미술 : 이 학 순
 무대의상 : 이 유 숙
 무대감독 : 권 영 준
 조 명 : 신 상 준
 음 향 : 정 정 식
 출 연 : 김은이 배정현 이인태외 20명



제1장 세례

무녀 모화의 아들 옥이의 천주교 세례식 장면
원작은 기독교지만 천주교로 설정

제2장 개구리 우는 흰 달빛 정원

옥이가 고향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모화와 동생 낭이를 만나는 장면. 특히 남매간의 사랑이 비정상적인 상황의 이미지로 설정

제3장 모화의 굿판

모화의 진오귀 굿판을 통해 모화가 巫女이면서 그녀의 삶의 현재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삶을 예고



제4장 악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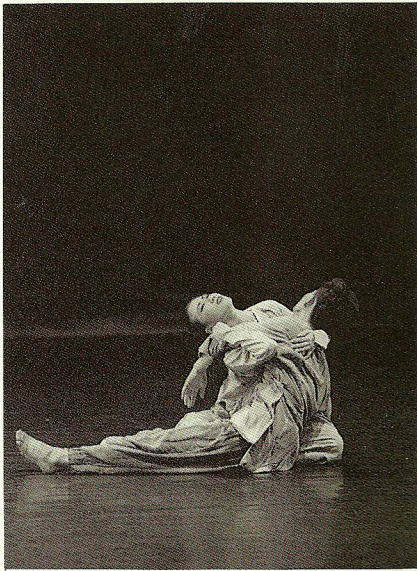
옥이의 심리적 공간 속에 억압과 잔상으로 천주교, 모성, 혈연애의 이미지들.

제5장 역모(逆母)

모화와 옥이. 모자간의 갈등과 비극적인 옥이 죽음에 따른다.

제6장 두 개의 흰오리 바람과

무속집단과 천주교 집단의 충돌, 모화의 죽음과 낭이의 가족을 잃은 슬픔이 된다.



출연 배역

모화 : 김은이

옥이 : 이인태

남이 : 배정현

사제들 : 이정숙

김정경

류정화

최윤희

이현림

윤은희

김세한

신진옥

김민

이은정

김진양

무녀들 : 김도희

김옥경

강경숙

정연주

장문주

류희조

우희향

이미진

정신혜

